



**전북대 문성필 교수, 발전기금 1000만원 기부**

전북대학교 문성필(목재응용과학과) 교수가 1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에 따르면 지난 2일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양요봉 총장과 대학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기증식을 열고, 기부에 대한 감사 의미를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문 교수의 발전기금은 대학경쟁력 향상기금으로 지정돼 대학발전 및 학생 교육 환경 개선에 쓰일 예정이다. 문성필 교수는 "전북대가 학생 중심 글로벌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고 싶었다"며 "대학의 주인이자 미래 주역인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정인원 전북대 석사과정생, 병해충 경진대회 대상**

전북대학교 곤충계통진화연구실의 농축산식품융합학과 소속 정인원 석사과정생(지도교수 김소라)이 '제1회 농작물 병해충 발생 스토리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한국응용곤충학회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대회는 시를 통한 해충 진단 기술을 고도화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다. 해충 발생에 관한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인원 석사과정생은 식용 및 약용으로 활용되는 채기류 식물의 가해 해충인 대만수염나방에 대해 알부터 유충 번데기, 성충까지의 단계별 생태 사이클 정보와 기생파리를 활용한 생물적 방제법을 제시했다. 이러한 방제 방법은 농작물 보호는 물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인원 석사과정생은 "연구에 매진할 수 있게 도와준 김소라 지도교수님과 연구실 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더 나은 성과를 위해 연구에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은성 기자



**남원 드림스타트, '엄마의 요리교실' 운영**

남원시 드림스타트는 지난 1일부터 드림스타트 이용 가구 중 22가구를 선정해 부모님들과 함께 유정이 요리학원의 재능기부로 요리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요리 교실은 가족의 화목과 건강한 가정 양육환경을 만들고 아동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해 주교자 유정이 요리학원장의 진행으로 부모님들과 함께 3가지(밀푼유기백, 진미채볶음, 영안부) 메뉴를 직접 만들어 밥상을 꾸려보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요리교실에 참여한 다문화 가정의 한 양육자는 "한국요리가 어려워 아이들에게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주기가 어려웠는데 조리법을 배워보니 자신감이 생겼다"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승기 교육장, 무주중 독서 행사장 찾아 격려**

무주교육지원청 김승기 교육장은 지난 1일 오전 무주중(교장 김준배)을 찾아(책으로 먼저 만나보는 진로 BOOK FESTIVAL) 행사장을 방문하여 담당자를 격려하고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독서 행사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학교 도서관을 비롯하여 등굣길과 구름다리 등에서 아이 부스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무주중 학생을 중심으로 관내 300여 명의 학생들이 독서 행사에 참여 중이다. 김 교육장은 먼저 교무실을 찾아 간담회를 통해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담당 교사의 설명을 듣고, 향후 독서 행사가 실질적인 독서 활동으로 이어지고 확장될 수 있도록 장기 계획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오준영 제35대 전북교총 회장 당선**

수석부회장 송지환, 부회장 김정희·김윤범·이원형

전라북도교육단체총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덕만 이하 전북교총)는 제35대 전북교총 회장 선거 결과 오준영 후보(부남초·중학교 교사)가 단독으로 등록한에 따라 회장선출규칙 제80조 규정에 의거 무투표로 당선, 지난 2일 당선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제35대 회장단의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오준영 당선인은 현 부남초·중학교 교사로 재직중이며, 한국교총 2080청년위원장, 전북교총 정책연구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전북교총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번 선거에서 부회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김정희 전주홍산유치원 원장, 김윤범 군산내동초등학교 교장, 이원형 전주서곡중학교 교장, 송지환 전주교육대학교 교수(수석부회장) 등 4명이 동반 출마로 당선됐다. 이에 따르면 오준영 당선인은 교육자의 가치를 높이는 교사 출신 회장을 모토로, 교권을 보호하고 교직원들의 갈등을 해소하는 선순환 시스템 도입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교원참여 시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적극 대응 MZ부터 은퇴까지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회원의 복지 프로그램 확충, 교육사업연구소 및 교육정책연구소 설립 및 운영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북교총 최초의 '현직 초등교사' 신분임과 동시에 역대 최연소(41세) 회장으로 선출된 특이한 이력을 갖게 된 오당선인은 "散 서이초 선생님 시대 이후 교권 4년, 이동복지법, 이동해대처법 등의 개정 및 관련 제도의 변화 요구가 전국의 교사들을 중심으로 흘러갔고,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교총에서 교사 신분의 회장 선출로 이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대의 요구는 교육 구성원 간의 갈라치기나 갈등의 유발로 해결될 수 없으며, 모두가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구성원 간의 행복으로 학교 교육력이 회복되는 사세를 발로 뛰어 찾아 널리 알리고, 꽃향기처럼 퍼져나갈 수 있는 자양분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은성 기자

**무주반딧불시장 김장 나눔, 150박스 6개 읍면 이웃들에 전달**

무주반딧불시장 상인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힘을 합쳤다. 무주군에 따르면 상인들은 지난 3일 시장 원형광장에서 김장 나눔 행사를 열고 배추 1천 포기로 담근 김치 150박스를 6개 읍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김장 나눔을 위해 상인들은 지난 2일부터 배추 씻기와 짚기, 양념 등을 손수 준비했으며 3일에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내민 등과 함께 김치를 담그며 나눔 실천 분위기를 조성했다. 무주반딧불시장 상인회 박옥희 회장은 "전통시장을 애용해 주시는 고객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올해도 김장 나눔을 진행하게 됐다"며 "전달되는 김장 박스가 어려운 이웃들의 걱정을 덜어 드리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김장 나눔 행사에 힘을 보탠 황인홍 군수는 "생업으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웃과 지역을 위해 항상 앞장서주시는 무주반딧불시장 상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라며 "시장이 살아야 상인 여러분도 신바람 나고 지역에도 생기가 되는 만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한편 무주반딧불시장(무주읍 소재, 장날 1·6일)은 무주군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오일장)으로 71명이 상인회에 가입(점포 50개, 노점 21개)해 경영현대화사업 참여와 조직력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에 동참하며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과 시장부처 사업 등에 선정(2019년)된 바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 갈치마을, 주거경관 개선 완료**

남원시는 2022년 전라북도 공모사업 선정으로 추진된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인 갈치마을은 문화예술마을 갈치리는 컨셉으로 주거지 경관개선과 공동이용시설 개선을 추진하였다. 사업은 2월 착공하여 6월에는 마을 미관 조성을 위한 지붕 도색작업 및 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을 완료하였고, 10월에는 마을 주민들이 산책하고 쉴 수 있는 풍경 동산도 조성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더 아름다운 갈치마을이 되었다며,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만족스러운 방문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계획 심화 상담**

장수군은 3일 여성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장수군 군·읍·면 담당 공무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심화 상담(컨설팅)을 실시했다. 행정안전부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상담은 지난 4월 장수군이 수립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해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 울타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상담에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에 대한 진단과 분석,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실행 과제 제시 등 현장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내용으로 구상된 강연과 현장 질의응답 등이 이뤄졌다. /장수=고관호 기자



**구천동농협, '여성농업인 이동상담실' 운영**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은 지난 3일 일상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여성 농업인의 고통 해결을 위해 농협 이동상담실을 운영했다. 이날 이동상담실에서는 여성농업인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용환 팀장이 '생활속 법률과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유익한 강의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진행해 참여자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이동상담실에 참석한 농업인은 "법률상담을 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어려웠는데 농촌 취약계층을 위해 귀중한 교육과 무료로 개별 상담을 해줘 너무 고맙다"고 교육 소감을 전했다. 김성곤 조합장은 "이번 농협 이동상담실을 통해 여성 조합원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의료원,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심포지엄**

남원의료원(원장 박주영)은 지난 2일,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김영병 대응을 위한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전라북도, 남원시, 남원시보건의료 등 연계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의 축사와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김영택 교수의 "포스트 코로나19 지역 감염병 대응 인프라 대응 강화 방안" 주제 강연과 성과발표 후 토론에서는 지난 코로나19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 새로운 감염병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남원의료원 박주영 원장은 "남원의료원이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앞으로도 견고한 지역 완결적 필수보건의료 제공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전했다. /남원=김기두기자



**비전대, LINC 3.0 JJ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우수상**

전주비전대학교 LINC 3.0 사업단(단장 최승훈)은 지난 1~3일까지 3일간 전주대학교 학생회관에서 열린 '2023 LINC 3.0 JJ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에 참가 기계과 '로봇팀'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도내 4개 대학이 공동 개최해 4차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학생들의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해 기획됐다. 이에 각 대학에서 총 25개 팀이 참가, 학생 발표와 함께 질의응답 형식으로 전문심사위원들이 평가했다. 이에 따르면 우수상을 차지한 '로봇팀'의 '로봇 암 키트화 및 PMP(Hk, Move, Ptc)'(지도교수 김은성, 참여학생 이동연 외 43명)는 토폴로지 최적화 기술을 활용한 6축 로봇 암 키트로, 키트를 조직해 붙여서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동작 원리와 제어 방법을 이해 습득할 수 있도록 제작한 작품이다. 이번 대회에 참여한 이동연(기계과) 학생은 "기존의 로봇 암은 전문적인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고, 주로 산업용으로서 고장 시 정비와 경제성, 가공성, 구동 메커니즘의 복잡성 등의 어려움이 있어 토폴로지 최적화 기술을 활용해 로봇 암 구조를 단순화했다"며 "비전문과인 학생들도 로봇암의 최적화 기술을 통해 구조 최적화 및 경량화 기술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정은성기자



**전주 흥산·신일교회, 예수병원 발전기금 기탁**

전주흥산교회(주찬규 목사)는 선교100주년 기념행사에 신충식 예수병원장을 초청해 병원발전기금 5백만 원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전주흥산교회 대성전과 앞마당에서 선교100주년을 기념해 감사예배와 임직예식을 진행했으며, 출판기념과 기념음악회를 순서로 100주년 기념했다. 또한 전주 신일교회(유정인 목사)는 유정인 목사와 장로·권사들이 병원을 방문해 예수병원 발전기금 500만 원과 전주기독교고대역사기념관 운영기금 500만 원을 각각 병원에 전달했다. 신충식 병원장은 "예수병원은 전주 흥산교회와 신일교회와 함께 전주지역 선교지역을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와 병원을 동반자로 여겨주시고 지역사회와 병원을 위해 실천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최근 예수병원 발전기금 후원에 지역사회의 폭넓은 후원인들이 동참해 예수병원의 발전을 돕고 있다. 발전기금은 진료와 교육 환경 개선, 연구 기금, 불우 환자 지원 등에 쓰이며 예수병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후원할 수 있다. /김재훈기자